



**설 명절을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
따뜻한 ‘위로’와 ‘성원’을 보내드립니다.**

마음과 마음을 담아 인정을 나누고,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 핏줄의 애뜻함을 공유해야하는 설 명절의 설레임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무참히 거부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두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. 이른 시간 내에 우리는 일상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고, 과거 평범하게 느꼈던 ‘함께 만나고 더불어 마주잡을 수 있었던 삶’에 대해 소중함과 감사를 더욱 깊이 느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

동지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왔습니다. 서울노총이 어떤 지역노총보다 조직 확대에 모범을 보여 왔고, 조합원 동지들 곁에 한걸음 더 다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공로입니다. 서울노총 의장이라는 직위를 떠나면서 동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슴 가득히 차오르고, 헤어짐에 대한 서운함이 온 몸을 엄습해 오는 것 또한 동지 여러분의 끈끈한 동지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.

노동운동의 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워크숍, 노·사·민·정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대회, 박원순 시장님의 관저에서 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의 자리는 제 기억의 지층에 오롯이 남아 있을 소중한 추억들입니다.

저는 이제 자동차노련의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모든 연대와 단결의 자리에서 노동형제라는 이름으로 동지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함께 할 것입니다. 처음 노동운동을 시작했을 때 각오했던 ‘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자’는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늘 당당한 마음으로 동지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잠시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.
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조합원의 한명으로서 서울노총이 영광과 모범의 역사를 계속 써 나갈 수 있도록 “늘 함께 하겠습니다”

2021년 2월

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서종수 올림